

경영자의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기업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석용¹, 황규진², 김기범^{2*}

¹동양공업전문대학 전산정보학부 ²동양공업전문대학 경영학부

The Effects of Auditor Turnover Ratio on the Quality of Earnings

Suk-Yong Jung¹, Kyu-Jin Hwang² and Ki-Beom Kim^{2*}

¹School of Computing and Information, Dongyang Technical College

²School of Management, Dongyang Technical College

요약 선행연구를 통해 자유선임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개선시켰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제도 도입 전후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이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회계이익의 질은 [12]모형과 수정 Jones모형(1991)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높은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회계이익의 질)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회계이익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 결과는 여전히 유의적이면서 일관되었다. 이는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 하에서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외부감사인 선임권이 이익조정을 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Abstract Since 1982, the auditee have selected the auditor under market mechanism. Under the system on which the auditor have been chosen by client, there have been chances for opinion shopping, etc. To prevent those, some audit regulations have been introduced. Prior studies have documented the positive effect of these audit regulations. Those studies, however, had some limitations which they dealt with just short event period for empirical test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Auditor Turnover Ratio on the Quality of Earnings using a sample of firms that were listed on Korea Exchange(KRX) from 1995 to 2004. The firms that change auditor frequently are expected to have low disclosure quality. The CEO with the incentives to manage or manipulate earnings could accomplish this purpose by replacing existing auditor with more friendly auditor, which could result in eventually lowering earning's quality of the firm. The result of empirical test shows that the accrual quality of firms which have high auditor turnover ratio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firms which have low ratio.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our hypothesis that the more frequently a firm changes auditor, the lower the quality of earning is. This evidence might give the implication to policy-making supervisor.

Key Words : Auditor turnover ratio, earning's quality, discretionary accrual

1. 서론

적격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은 경영자의 재무제표 주장에 대하여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과 정보이용자간에 존재하는 정보불균형을 해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감사인의 활동에 의해 대리인비용이 감소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증대를 가져온다.

감사인의 적격성과 독립성은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외부감사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1982

* 교신저자 : 김기범(kibum2005@hanmail.net)

년 2월부터 종래의 배정식추천제도에서 피감사인에게 감사인선임권을 부여하는 자유선임제도로 변경되면서부터, 자율경쟁 증진에 따른 감사인의 적격성 및 감사품질은 향상된 반면, 감사인의 독립성은 약화되었다는 실증결과가 보고되었다. 즉, [6]은 의견이 부적절하게 제시될 확률이 제도 도입 후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피감사인에게 감사인 선임권을 부여하는 자유선임제도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령, 경영자가 기회주의적 행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감사인에게 협력을 요구할 경우, 감사인은 이에 굴하여 타협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교체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자유선임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1997년도부터 도입된 감사인유지제도는 최소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외감법 제4조의 2). 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피감사인(기업)에 의한 교체압력이 차단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업무 수행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정감사인은 지정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한 3년 동안 교체되지 않고(감사인유지), 지정 3년 후에도 여전히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년째 다른 감사인이 지정된다(감사인순환). 이들 제도는 각각 교체압력과 경제적 준지대를 차단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도입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개선되었다는 실증연구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제도 적용 전후만을 살펴본 것인 한계를 갖는다. 선행연구들은 감사인 지정 직전년도부터 지정기간동안 재량적발생액은 감소하며, 지정요건에서 벗어나 자발적 감사인교체가 가능한 시점에 재량적발생액은 다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1,2,7). 그리고 감사인 유지기간 내에서도 감사인 유지기업들의 재량적 발생액이 유지 이전 기간보다 감소하였으며, 감사인유지 마지막 년도의 재량적 발생액은 다시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8]. 이를 통해 제도의 도입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은 강화되었으나 지정 및 유지 마지막 년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감사인교체를 전후로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이 심화되고 이후 자발적교체 시점에 경영자가 감사인 교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이익조정을 시도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의 질 저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제도의 도입 전후만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조정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러한 효과가 장기적으로도 지속성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 감사인 교체 뿐 아니라 감사인지정 및 감사인유지제도에 의해 감사인 교체가 이루어진 기업도 표본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를 통제한 뒤, 감사인 교체빈도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이익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실증결과, 감사인 교체빈도가 높을수록 이익의 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사인교체빈도가 높을 경우 경영자에 의한 이익조정 등으로 인해 이익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며, 궁극적으로는 피감사인인 경영자에 의해 감사인이 선임되는 자유수임제도의 근원적 한계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을,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였고, 제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2. 선행 연구 및 가설 설정

2.1 선행연구

손성규와 이은철[3]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간의 수시공시 자료를 수집하여 감사인과 경영자의 의견 불일치(Auditor-Client Disagreement)가 감사인교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의견불일치가 감사인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들의 연구 역시 감사인교체로 인해 이익의 질이 영향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를 통제한 뒤, 감사인 교체빈도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이익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한편, 감사인지정제도에 의한 비자발적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감사인 지정 전후 재량적발생액의 증감여부의 유의성을 분석하여 제도 도입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1]은 감사인지정 직전 연도에 재량적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2]는 감사인지정 기업의 지정기간의 재량적 발생액은 비지정기간 및 비지정기업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 [7]은 감사인지정 종료 후 기존의 감사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감사인지정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비자발적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감사인교체(혹은 감사인지정) 이전이나 감사인교체(혹은 감사인지정) 이후의 비교적 짧은 기간만을 대상

으로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감사인지정으로 인한 교체, 감사인 지정 해제로 인한 교체를 모두 감사인 교체표본에 포함시킴으로써 감사인 지정제도의 효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2.2 가설설정

[3]은 한국개발연구원이 2003년에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감사인의 전문성, 독립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감사인의 전문성, 독립성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였고, ‘전문적이지만 업무수행에서 회사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는 응답비율이 77.1%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외부감사관 경영자의 재무제표 주장에 대해 감사인이 인증업무를 수행하여 신뢰성을 부여하는 과정인데, 감사인 선임권을 갖고 있는 경영자가 감사인에게 교체압력을 행사한다면 감사인은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계속감사수입의 유인으로 인해 감사인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협력할 경우 이는 재무보고의 신뢰성 저하 즉 이익의 질 저하로 귀결될 것이다.

한편, [16]은 협조적 감사인에서 신규감사인으로서의 교체만으로도 이익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협조적 감사인으로서의 교체 후 감사효과가 높아질 즈음, 경영자가 다시 신규 감사인으로 교체하는 경우 이로 인해 이익의 질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이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감사초기 신규감사인과 회사간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19]는 재량적 발생액과 유동발생액이 계속 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보였는데, 이는 특정 감사인의 계속 감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경영자의 이익조정 시도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자유선임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기관에 의한 감사인 지정(비자발적 감사인교체)제도가 1990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비자발적 감사인 교체 역시 이익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감사인지정 직전년도부터 지정기간 동안 재량적발생액은 감소하며, 지정요건에서 벗어나 자발적 감사인교체가 가능한 시점에 재량적발생액은 다시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2,7). 즉, 감사인지정 후 감사인 선임권한이 다시 경영자에게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 동안 재량적 발생액의 표준편차는 커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이익의 질은 저하될 수 있다.

한편 감사인교체를 억제하는 감사인유지제도가 있

나 유지기간 3년 후에는 피감사인은 감사인을 자유로이 교체할 수 있다. [8]은 감사인 유지기간 내에는 감사인 유지기업들의 재량적 발생액이 이전 기간보다 감소하였으나, 유지 마지막 년도의 재량적 발생액은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감사인 유지제도에 의해 계속감사기간 초기에 감사인의 독립성은 강화되었으나 감사인 유지 마지막 년도에는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감사인 교체가 경영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든 정부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든 감사인 교체는 재량적 발생액의 표준편차를 증가시켜 이익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예상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 감사인교체 빈도가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의 질이 낮다.

3. 연구방법

3.1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4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인교체 빈도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감사인 및 재무자료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최소한 5개년도 이상의 감사인자료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9,298개의 기업-연도 표본이 선정되었고 최종적으로 970개의 표본이 선정되었다.

3.2 연구모형

감사인 교체율과 이익의 질의 관계분석을 위해 교체를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이익의 질을 비교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설명변수를 통제한 뒤,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1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 측정

이익의 질은 [12]모형(이하 DD모형)과 [17]모형을 통해 측정하였다. [12]는 발생액과 미래실현될 현금흐름이 일치하는 정도로 이익의 질을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발생액과 전기, 당기, 차기 영업현금흐름의 관계를 이용하였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elta WC_{i,t} = \beta_0 + \beta_1 CFO_{i,t-1} + \beta_2 CFO_{i,t} + \beta_3 CFO_{i,t+1} + \epsilon_{i,t} \quad (1)$$

$\Delta WC_{i,t}$ 는 i 기업의 t 기간의 운전자본 증감분/전기말 자산총계를 의미하고, $CFO_{i,t}$ 는 i 기업의 t 기간의 영업활동현금흐름/전기말 자산총계를 의미한다. 이때 운전자본 증감분=[당기 운전자본(WC)-전기 운전자본(WC)], 운전자본=[(유동자산-현금자산)-(유동부채-단기 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 현금 자산=[현금등가물 + 단기금융상품 + 유가증권] 로 표시되는 값을 갖는다.

식 (1)에서 ΔWC (운전자본 증감분)는 대차대조표 접근 방식에 의한 발생액이며, CFO는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다. 식 (1)에서 잔차(ϵ)는 현금흐름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 발생액이고, 이는 발생액의 추정오차 (estimation error)를 의미한다. (식) 1의 회귀계수는 기업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발생액의 변동성 (이익의 질)은 식 (1)의 잔차의 표준편차를 통해 측정되었다. 즉, 잔차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발생액의 변동성은 커지고 이익의 질은 낮아진다.

식 (1)로 계산된 잔차의 표준편차를 $SD(\epsilon_{ddi})$ 로 정의하고 $SD(\epsilon_{ddi})$ 의 역수를 첫 번째 이익의 질 측정치인 EQ1으로 한다. 즉 잔차의 표준편차인 $SD(\epsilon_{ddi})$ 가 클수록 EQ1은 작아지며 이익의 질은 낮아지며, $SD(\epsilon_{ddi})$ 가 작을수록 EQ1이 커지며 이익의 질은 높아진다.

$$EQ1 = \frac{1}{\epsilon_{ddi}} \quad (2)$$

두 번째 이익의 질 측정치는 수정존스 모형에 의한 재무적 발생액의 표준편차를 이용한다. 수정존스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ccruals_{i,t} = \beta_0(1/TA_{i,t-1}) + \beta_1(\Delta SALE_{i,t} - \Delta REC_{i,t}) + \beta_2(PPE_{i,t}) + \epsilon_{i,t} \quad (3)$$

여기서, $Accruals_{i,t}$ 는 i기업의 t기간의 발생액/전기말 자산총계, $TA_{i,t-1}$ 는 i기업의 t-1시점말의 자산 총계, $\Delta SALE_{i,t}$ 는 i기업의 t기간의 매출액 증가분/전기말 자산총계, $\Delta REC_{i,t}$ 는 i기업의 t기간의 매출채권 증가분/전기말 자산총계, $PPE_{i,t}$ 는 i기업의 t시점의 유형자산/전기말 자산총계를 의미한다.

식 (3)을 사용하여 각 기업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적 발생액(ϵ)의 표준편차인 $SD(\epsilon_{aji})$ 를 구한다. 여기서 $SD(\epsilon_{aji})$ 의 역수를 두 번째 이익의 질 측정치인 EQ2로 정의한다. 같은 논리로 $SD(\epsilon_{aji})$ 가 클수록 EQ2는 작아지며 이익의 질은 낮아진다. 반대로 $SD(\epsilon_{aji})$ 가 작을수록 EQ2가 커지며 이익의 질은 높아진다.

$$EQ2 = \frac{1}{\epsilon_{aji}} \quad (4)$$

3.2.2 감사인 교체율(Auditor Turnover Ratio)

감사인 교체율은 감사인 교체가 전체 기간 동안 몇 번이나 이루어졌는가로 측정한다. 예를 들어 해당기업의 감사인 정보가 존재하는 기간이 10년이고 이 중 5번 감사인 교체가 있었다면 감사인 교체율은 50%(5/10)이다.

3.2.3 감사인교체율 상하위그룹간 이익의 질 비교

감사인 교체율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이익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감사인교체율이 0%인 166개 기업(교체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과 감사인 교체율이 상위에 속하는 166개 기업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때 교체상위 그룹은 감사인 교체율이 30%이상인 기업들로 구성된다.

3.2.4 회귀분석 모형

감사인 교체율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회귀식을 이용한다. 종속변수는 앞에서 측정된 DD모형과 수정존스모형에 의한 이익의 질 측정치가 각각 사용된다. 검증변수는 감사인 교체율(TRA)로 감사인 교체횟수를 감사인 교체정보가 존재하는 연도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감사인 교체율이 높을수록 이익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TRA의 계수 β_1 의 계수가 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Q_i = \beta_0 + \beta_1 TRA_i + \beta_2 Loss_i + \beta_3 SD(Sale_i) + \beta_4 OC_i + \beta_5 Log(TA_i) + \beta_6 Large_i + \beta_7 Foreign_i + \beta_8 Inst_i + v_i \quad (5)$$

EQ_i 는 기업 i의 이익의 질로 수정존스모형에 의한 것과 Dechow and Dichev모형에 의한 것으로 각각 측정되고, TRA_i 는 기업 i의 감사인 교체율 (=감사인 교체 횟수/감사인교체 정보가 존재하는 연도의 수), $Loss_i$ 는 기업 i의 적자 비율 (= 적자 연도의 수/재무제표 정보가 존재하는 연도의 수), $SD(Sale_i)$ 은 기업 i의 매출액 표준편차, OC_i 은 기업 i의 평균 영업주기/360(= 360/(매출액/매출채권) + 360/(매출원가/재고자산)), $Log(TA_i)$ 는 기업 i의 자산총계의 자연대수 값의 시계열 평균, $Large_i$ 은 기업 i의 대주주 1인 지분율의 시계열 평균, $Foreign_i$ 은 기업 i의 외국인 지분율의 시계열 평균, $Inst_i$ 은 기업 i의 기관투자자(은행, 증권, 보험 등) 지분율의 시계열평균, v_i 은 기업 i의 잔차를 의미한다.

이익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통제변수가 추가적으로 회귀모형에 포함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해 이

이익의 질과 관련 있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자보고 빈도가 높을수록 이익의 질은 낮아진다. 적자시점의 비용발생액은 상당한 추정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낮은 이익의 질을 의미한다[12]. 본 연구에서는 적자를 보고하는 빈도를 적자비율로 측정하며 이는 적자 연도의 수를 재무제표 정보가 존재하는 연도의 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둘째, 높은 매출액 변동성은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많은 추정과 높은 추정오차로 인해 이익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12]. 매출액 변동성은 매출액의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셋째, 영업주기와 이익의 질 사이에도 음(-)의 관계가 예상된다. 영업주기가 길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더 많은 추정과 추정오차의 발생으로 이익의 질은 떨어진다[12].

넷째,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이익의 질은 떨어진다. 대규모기업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므로 예측오차가 작다. 기업규모는 총자산의 자연대수로 측정한다.

다섯째, 소유구조관련 변수들인 대주주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기관투자자지분 변수가 추가된다. 소유구조와 이익의 질의 관계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을 수 있다. 지배주주가 최고경영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대주주 1인 지분율과 이익의 질은 양의 관계가 예상되지만, 지배주주가 최고경영자이거나 이사회를 장악한 경우에는 대주주 1인 지분율과 이익의 질은 음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5].

외국인 투자자는 경영진으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으로 감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외국인 지분율(Foreign)과 이익의 질은 양의 관계가 예상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때문에 음의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기관투자자 지분율과 이익의 질은 양의 관계가 예상되지만, 경영진과의 관계에 따라 음의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5].

4. 실증분석 결과

4.1 감사인 교체 현황

[표 1]에는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에 대한 연도별 감사인 교체비율, 업종별 감사인 교체율 그리고 시장별 감사인 교체율을 보여주고 있다.

Panel A는 연도별 교체비율 및 전체 교체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기업-연도 9,298개 표본 중에서 1,773개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나 19.07%의 교체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로 감사인 교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해는 31.63%를 기록한 1999년도였으며 2003년에 가장 적은 감사인 교체를 보여주고 있다.

Panel B는 산업별 감사인 교체율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27.37%로 가장 높은 교체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19.81%), 건설업(19.61%) 그리고 제조업(19.81%)순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교체율이 가장 낮은 산업은 통신업으로 8.33%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다.

시장별 감사인 교체율을 보여주는 Panel C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 소속된 기업들의 감사인 교체율이 20.75%로 코스닥시장에 소속된 기업들의 교체율인 16.9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감사인교체 특성

연도	표본 수	감사인교체 기업수	교체 비율(%)
1995	827	174	21.04
1996	873	126	14.43
1997	901	232	25.75
1998	919	201	21.87
1999	939	297	31.63
2000	963	213	22.12
2001	970	137	14.12
2002	969	154	15.89
2003	969	80	8.26
2004	968	159	16.43
합계 (또는 평균)	9,298	1,773	19.07

업종	기업수	평균교체율 (%)
서비스업	67	17.89
건설업	51	19.61
도매 및 소매업	72	19.81
운수업	21	14.7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1	27.37
제조업	731	19.18
통신업	6	8.33
기타	11	16.7
합계	970	19.10

시장	기업수	평균교체율(%)
유가증권시장	555	20.75
코스닥시장	415	16.90

- 1) 교체 비율 = 연도별 감사인 교체 기업 수/표본 수
- 2) 교체율 = 기업별 감사인 교체 횟수/감사인 정보가 존재하는 연도의 수

4.2 기술 통계량

[표 2]는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DD모형의 이익의 질 측정치인 EQ1의 평균은 22.54이고 수정존스모형에 의한 이익의 질 측정치인 EQ2의 평균은 15.34로 EQ1의 평균이 EQ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교체율(TRA)의 평균은 19.10%로 10년에 평균 2번, 즉 평균 5년마다 감사인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감사인교체가 없었던 기업이 전체의 17%정도였으며 교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기업은 70%의 교체율을 기록하였다. 적자비율(Loss)의 평균은 20.48%로 기업이 10년에 평균적으로 약 2회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70개 기업 중 1995년부터 2004년 동안 적자가 없었던 기업은 331개이며, 적자비율 100%로 본 연구의 연구기간인 10년 동안 모두 적자를 보고한 기업이 있었다. 매출액의 표준편차(SD(Sale))의 평균은 0.58이었으며 영업주기(OC)의 평균은 0.4로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Large), 외국인지분율(Foreign) 그리고 기관투자자지분율(Inst)의 평균은 각각 0.34, 0.06 그리고 0.06이다.

[표 3]은 상관관계의 표이다. DD모형의 이익의 질 측정치(EQ1)와 수정존스모형의 이익의 질 측정치(EQ2)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이유는 다중공선성 문제(multicollinearity)를 사전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상관계수가 0에 근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표 2] 회귀분석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1분위 값	중간 값	3분위 값
EQ1	970	22.54	16.12	11.42	18.52	28.48
EQ2	970	15.34	10.76	8.45	13.20	19.45
TRA(%)	970	19.10	13.83	10.00	20.00	30.00
Loss(%)	970	20.48	22.23	0.00	10.00	33.33
SD(Sale)	970	0.58	5.43	0.18	0.28	0.44
OC	970	0.40	0.24	0.24	0.34	0.49
Log(TA)	970	18.35	1.44	17.28	18.07	19.09
Large	970	0.34	0.18	0.19	0.33	0.46
Foreign	970	0.06	0.12	0.00	0.006	0.06
Inst.	970	0.06	0.09	0.007	0.03	0.08

EQ1 = DD모형에 의한 이익의 질임.

EQ2 = 수정존스모형에 의한 이익의 질임.

TRA = CEO 교체 횟수/CEO 정보 존재 연도의 수

Loss = 적자 연도의 수/재무제표 정보 존재 연도의 수

SD(Sale) = 매출액 표준편차

OC = [360/(매출액/평균 매출채권) + 360/(매출원가/평균 재고자산)]/360

Log(TA) = 자산 총계의 자연 대수 값의 평균

Large = 대주주 1인 지분율의 평균

Foreign =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

Inst. =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평균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변수간 상관계수가 대부분 0에 근사하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음을 전제로 한다.

이익의 질 측정치들(EQ1, EQ2)과 감사인교체율(TRA)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음(-)의 값으로 보고되어 감사인교체율이 높을수록 이익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

[표 3] 변수들의 상관관계

	EQ1	EQ2	TRA	Loss	SD(Sale)	OC	Log(TA)	Large	Foreign	Inst.
EQ1	1.00	0.47***	-0.12***	-0.35***	-0.03	-0.12***	0.15***	0.07**	0.07**	-0.015
EQ2		1.00	-0.17***	-0.34***	-0.05	-0.05	0.19***	0.07**	0.17***	-0.02
TRA			1.00	0.19***	-0.02	0.02	0.02	-0.02	-0.01	0.08***
Loss				1.00	-0.02	0.15***	-0.03	-0.25***	-0.17***	0.02
SD(Sale)					1.00	-0.04	-0.05	0.03	-0.02	0.01
OC						1.00	-0.11***	-0.14***	-0.09***	-0.05
Log(TA)							1.00	-0.03	0.46***	0.38***
Large								1.00	-0.04	-0.05
Foreign									1.00	0.13***
Inst.										1.00

***, **, * :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EQ1 = DD모형에 의한 이익의 질임. EQ2 = 수정존스모형에 의한 이익의 질임.

TRA = CEO 교체 횟수/CEO 정보가 존재하는 연도의 수

Loss = 적자 연도의 수/재무제표 정보가 존재하는 연도의 수

SD(Sale) = 매출액 표준편차

OC = [360/(매출액/평균 매출채권) + 360/(매출원가/평균 재고자산)]/360

Log(TA) = 자산 총계의 자연 대수 값의 평균

Large = 대주주 1인 지분율의 평균

Foreign =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

Inst. =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평균

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설 예상방향과 일치한다. 이익의 질 측정치들(EQ1, EQ2)은 적자비용(Loss)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기업이 적자를 보고하는 빈도가 잦을수록 이익의 질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12]. DD모형에 의한 이익의 질 측정치(EQ1)는 영업주기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영업주기가 길어질수록 이익의 질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익의 질(EQ1, EQ2)과 기업규모(Log(TA))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익의 질이 좋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12].

대주주지분율(Large)과 이익의 질은 유의한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지분율(Foreign)과 이익의 질도 유의한 양(+)의 관계였다.

4.3 감사인 교체율에 따른 이익의 질 비교

감사인 교체율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이익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감사인 교체율이 0%인 166개 기업(교체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과 감사인 교체율이 상위에 속하는 166개 기업의 이익의 질에 대한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사인 교체율 상위그룹은 교체율이 30%이상인 166개의 기업이며, 감사인 교체율이 0%인 기업을 하위그룹으로 한다.

[표 4] 감사인 교체율 상하위 그룹간 이익의 질 차이 분석

변수	표본수	평균		평균의 차이 (t값)
		상위 그룹	하위 그룹	
EQ1	332	15.99	21.65	-9.14(-3.48***)
EQ2	332	11.07	15.59	-7.81(-3.76***)

***, **, * :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EQ1은 DD모형에 의한 이익의 질이며, EQ2는 수정존스 모형에 의한 이익의 질임.

[표 4]는 감사인 교체율 상위그룹과 하위그룹간의 이익의 질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익의 질 측정치가 EQ1인 경우 감사인 교체율이 높은 상위그룹의 이익의 질 평균이 15.99였고 감사인 교체가 없는 하위그룹의 이익의 질 평균이 21.65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의 질 측정치가 EQ2인 경우도 상위그룹의 평균이 11.07, 하위그룹의 평균이 15.59로 제시되었다. 즉 감사인 교체율이 높은 상위그룹의 이익의 질이 감사인 교체가 없었던 하위그룹의 이익의 질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교체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이익의 질이 낮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의 차이분석은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적

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4.4 감사인 교체율과 이익의 질 간 회귀분석

[표 5]와 [표 6]은 선행연구에서 이익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통제변수들을 고려하여 감사인 교체율과 이익의 질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5]는 종속변수로 DD모형에 의한 이익의 질 측정치(EQ1)를 사용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모형1은 대주주지분율(Large), 외국인지분율(Foreign) 그리고 기관투자자지분율(Inst)을 고려하기 전의 회귀모형이며 모형2는 이들 지분율을 회귀식에 고려한 것이다. 우선 모형1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주된 검증변수인 감사인 교체율(TRA)의 계수값이 -0.08로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었다(t=-2.32).

[표 5]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가 EQ1인 경우)

변수	모형 1	모형 2
절편	2.46(0.39)	-7.61(-1.03)
TRA	-0.08(-2.32**)	-0.08(-2.17**)
Loss	-0.24(-10.62***)	-0.24(-10.51***)
SD(Sales)	-0.11(-1.22)	-0.10(-1.15)
OC	-3.50(-1.71*)	-3.67(-1.78*)
Log(TA)	1.52(4.55***)	2.16(5.41***)
Large		-0.38(-0.14)
Foreign		-9.24(-2.00**)
Inst.		-13.95(-2.30**)
Adj. R2	0.146	0.151
F값	34.05***	22.53***
표본수	970	970

$$\text{모형1: } EQ_i = \beta_0 + \beta_1 \text{TRA}_i + \beta_2 \text{Loss}_i + \beta_3 \text{SD}(\text{Sale}_i) + \beta_4 \text{OC}_i + \beta_5 \text{Log}(\text{TA}_i) + v_i$$

$$\text{모형2: } EQ_i = \beta_0 + \beta_1 \text{TRA}_i + \beta_2 \text{Loss}_i + \beta_3 \text{SD}(\text{Sale}_i) + \beta_4 \text{OC}_i + \beta_5 \text{Log}(\text{TA}_i) + \beta_6 \text{Large}_i + \beta_7 \text{Foreign}_i + \beta_8 \text{Inst}_i + v_i$$

***, **, *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EQ1 = DD모형에 의한 이익의 질임

TRA = CEO 교체 횟수/CEO 정보 존재 연도의 수

Loss = 적자연도의 수/재무제표정보 존재 연도의 수

SD(Sale) = 매출액 표준편차

OC = [360/(매출액/평균 매출채권) + 360/(매출원가/평균 재고자산)]/360

Log(TA) = 자산 총계의 자연 대수 값의 평균

Large = 대주주 1인 지분율의 평균

Foreign =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

Inst. =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평균

또한 지분율 변수들을 고려한 모형2의 경우도 감사인 교체율(TRA)의 계수값이 -0.08의 유의한 음(-)의 값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t=-2.17). 즉 감사인교체율이 높을수록 이익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여 본 연구의 가

설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즉 이익조정 등의 시도가 많고 잦은 감사인 교체를 시도한 기업(즉, 감사인교체빈도가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발생액과 이익의 변동이 평균적으로 보다 클 것이고, 이익의 질은 보다 낮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때 [표 5]의 R-sqr값은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는데 대개 이 값이 15% 내외일 경우 통계학적으로는 낮은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회계자료 및 추가자료를 사용하는 국내외의 유사한 연구(특히 이익 또는 이익조정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낮은 통계학적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문적 연구가 지속되는 이유는 회계체계 전반적으로 회계 및 추가변수 등 계수값이 유의적일 경우 학문적 공헌점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통제변수들의 부호도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비용(Loss)의 계수값이 모형1에서 -0.24(t=-10.62) 그리고 모형2에서 -0.24(t=-10.51)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 기업의 적자횟수가 많을수록 이익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액의 표준편차(SD(Sale))의 계수값은 모형1과 2에서 각각 -0.11, -0.10으로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영업주기(OC)변수의 계수값은 모형1과 2에서 각각 -3.5(t=-1.71), 그리고 -3.67(t=-1.78)로 10%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영업순환주기가 길수록 생산, 판매, 대금회수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에서 추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이익의 질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다[12]. 총자산(Log(TA))의 계수값도 모형1과 2에서 각각 1.52(t=4.55)와 2.16(t=5.41)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익의 질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 한편 모형2에서 외국인지분율(Foreign)의 계수값이 -9.24(t=-2.00)로 유의한 음(-)으로 나타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보다 정보 비대칭성이 높아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이익의 질이 낮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5]. 또한 기관투자자지분율(Inst)의 계수값도 유의한 음(-)으로 나타나 기관투자자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이익의 질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진 요구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5].

[표 6]은 종속변수로 수정존스모형을 이용하여 이익의 질(EQ2)을 사용한 회귀식의 결과이다. [표 6]의 결과도 [표 5]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감사인교체율(TRA)의 계수값이 모형1과 모형2에서 각각 -0.10(t=-4.31)과 -0.09(t=-4.13)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로 EQ1을 사용한 결과보다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감사인 교체빈도가 높은 기업

이 낮은 기업에 비해 이익의 질이 낮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다른 통제변수들의 계수값도 [표 5]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표 6]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가 EQ2인 경우)

변수	모형 1	모형 2
절편	-6.12(-1.46)	-8.93(-1.82*)
TRA	-0.10(-4.31***)	-0.09(-4.13***)
Loss	-0.15(-10.19***)	-0.14(-9.42***)
SD(Sales)	-0.09(-1.53)	-0.08(-1.45)
OC	0.98(0.72)	1.04(0.76)
Log(TA)	1.42(6.43***)	1.57(5.94***)
Large		0.92(0.51)
Foreign		3.65(0.23)
Inst.		-11.15(-2.78***)
Adj. R2	0.160	0.166
F값	38.00**	25.13**
표본수	970	970

모형1: $EQ_i = \beta_0 + \beta_1 TRA_i + \beta_2 Loss_i + \beta_3 SD(Sale_i) + \beta_4 OC_i + \beta_5 Log(TA_i) + v_i$

모형2: $EQ_i = \beta_0 + \beta_1 TRA_i + \beta_2 Loss_i + \beta_3 SD(Sale_i) + \beta_4 OC_i + \beta_5 Log(TA_i) + \beta_6 Large_i + \beta_7 Foreign_i + \beta_8 Inst_i + v_i$

***, **, *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EQ2 = 수정존스모형에 의한 이익의 질임
다른 수들에 대한 정의는 [표 5]와 동일함

4.5 추가분석

[표 7]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가 EQ2인 경우)

변수	모형2	
	Group1	Group2
절편	-3.56(-0.78)	-6.65(-0.75)
Group1	-2.77(-2.94***)	
Group2		-3.32(-2.27**)
Loss	-0.15(-9.51***)	-0.18(-5.78***)
SD(Sales)	-1.49(-3.59***)	-2.83(-2.49**)
OC	1.04(0.70)	-1.29(-0.43)
Log(TA)	1.36(5.67***)	1.63(3.47***)
Adj. R2	0.151	0.192
F값	31.88**	13.56**
표본수	970	484

***, **, *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EQ2 = 수정존스모형에 의한 이익의 질임
다른 수들에 대한 정의는 [표 5]와 동일함

Group1=더미변수로 감사인교체빈도(TRA)가 "0"인 집단의 경우 Group1은 0의 값을 가지며, TRA가 "1"인 집단의 Group1은 1의 값이 부여됨

Group2=더미변수로 TRA가 높은 상위 사분위(75%이상)와 하위 사분위(25%이하)에 해당되는 표본을 구분하여, 하위 사분위에 해당되는 경우 Group2는 0의 값이 부여되고 상위 사분위에 해당되는 경우 Group2는 1의 값을 가짐

이 때 종속변수가 EQ1인 경우도 EQ2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지면관계상 EQ2에 대한 결과만 보고한다. 한편 [표 7]은 추가적으로 감사인교체빈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집단구분 더미변수인 "Group1" 과 "Group2"가 감사인교체빈도 (TRA)대신 회귀분석의 검증변수로 포함된다. TRA가 "0"인 집단의 경우 Group1은 0의 값을 가지며, TRA가 "1"인 집단의 Group1은 1의 값이 부여된다. 또한 TRA가 높은 상위 사분위수(75%이상)와 하위 사분위수(25%이하)에 해당되는 표본을 구분하여 하위 사분위수에 해당되는 경우 Group2는 0의 값이 부여되고 상위 사분위수에 해당되는 경우 Group2는 1의 값을 가진다. [표 7]에 제시된 대로, 분석 결과는 기존의 결과와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감사인 자유선임제도하에서 빈번한 감사인 교체를 통하여 이익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결과, 감사인 교체빈도가 높은 기업의 이익의 질이 교체빈도가 낮은 기업의 이익의 질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익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일관되게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유선임제도 하에서 제공되는 감사인 선임권이 경영자에게 이익조정의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이익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주요 제도 즉, 감사인지정제도 및 감사인유지제도¹⁾ 하에서도 감사인교체 빈도가 높을수록 이익의 질은 낮아진다는 실증 결과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공헌점은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감사인 교체빈도를 추가했다는 점과,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자유선임제도의 한계점을 장기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정책당국의 감리기업 표본선택과 관련하여 감사인 교체빈도라는 변수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는 이익의 질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과정에서 시계열자료의 특성상 계수 추정시 긴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계수추정치 편이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 감사인 교체 및 비자발적 감사인 교체를 동일하게 간주하고 실증결과를 제시하였지만 감사인교체 유형에 따른 교체특성이 이익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두 유형의 교체 사이에 존재하는 특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자발적인 감사인교체만 이루어지는 비상장기업들이 상장기업과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작업과도 관련되는 사항으로 향후 의미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선민·황인태, "감사인 지정과 재량적발생액의 변화", 「회계학연구」 제32권제4호, pp.115-150, 2007.
- [2] 권수영·노준화·배길수, "감사인 지정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가? 감사인 순환과 감사인 유지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12월(제29권 제4호), pp.191-218, 2004.
- [3] 손성규·이은철, "경영자-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인교체", 한국회계학회 제9회 하계통합학술대회2007.
- [4] 이효익, "감사인의 교체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11, pp. 1-36, 1990.
- [5] 전성빈·박상수·이아영, "최고경영자 교체빈도와 이익의 질", 「회계와 감사연구」 제45호, pp.1-28, 2007.
- [6] 정문중, "자유수임제와 감사인의 독립성", 「회계학연구」 제19호, pp.247-273, 1994.
- [7] 정태범·박희우, "감사인지정 마지막 연도의 감사품질 : 기업의 이익조정을 중심으로", 「회계저널」(제14권), pp.129-154, 2005.
- [8] 정혜영·전성일, "감사인 유지제도의 실효성과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37호, pp.1-26, 2001.
- [9] Chow, C., and S. Rice., "Qualified Audit Opinions and Auditor Switching", Accounting Review 57, pp.326-335, 1982.
- [10] Defond, M., "The Association Between Changes in Client Firm Agency Costs and Auditor Switch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 11(Spring), pp.16-31, 1992.
- [11] Dhaliwal, D., J. Schatzberg, and M. Trombley. "An Analysis of the Economic Factors Related to Auditor-Client Disagreements Predicting Auditor Changes",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 12(Fall), pp.22-37, 1993.
- [12] Dechow, P.M. and I.D. Dichev,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1) 본 연구는 1995년도부터 2004년도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2005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감사인강제순환제도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 errors", Accounting Review 77, pp.35-59, 2002.
- [13] Defond, M., and J. Jiambalvo. "Factors Related to Auditor-Client Disagreement over Income-Increasing Accounting Method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9 ,pp.415-431, 1993.
- [14] Defond, M., and K. Subramanyam., "Auditor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 pp35-68, 1998.
- [15] Francis, J., and E. Willson., "Auditor Changes : A Joint Test of Theories Relating to Agency Costs and Auditor Differentiation". Accounting Review 63, pp.663-682, 1988.
- [16] Geiger, M., and K. Raghunandan., "Auditor Tenure and Audit Report Failure". A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e, pp.67-78, 2002.
- [17] Jones, J.J.,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 pp.193-228, 1991.
- [18] Magee, R , Tseng, M. "Audit pricing and independence" Accounting Review 65, pp.315-336, 1990.
- [19] Myers, J, Myers, L, Omer, T, "Exploring the term of the auditor-client relationship and the quality of earnings a case for mandatory auditor rotation?", Accounting Review (forthcoming), 2003.
- [20] Subramanyam, K.R., "The pricing of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2, pp.249-281, 1996.
- [21] Titman, S. and B. Trueman., "Information Quality and the Valuation of New Issu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June), pp.159-172, 1986.

황 규 진(Kyu-Jin Hwa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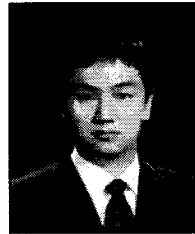


- 2009년 4월 ~ 현재 : 동양공업전문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재무회계, 회계감사

김 기 범(Ki-Beom K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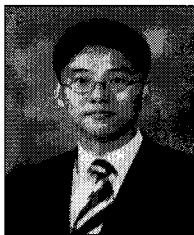


- 2009년 4월 ~ 현재 : 동양공업전문대학 경영학부 전임강사

<관심분야>
회계감사

정 석 용(Suk-Yong Jung)

[중신회원]



- 2009년 4월 ~ 현재 : 동양공업전문대학 전산정보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정보경영, 정보통신